

농어촌공사, 예산 수해 책임론에 '반박'... "극한호우가 원인"

박나라 기자 | 승인 2025.08.08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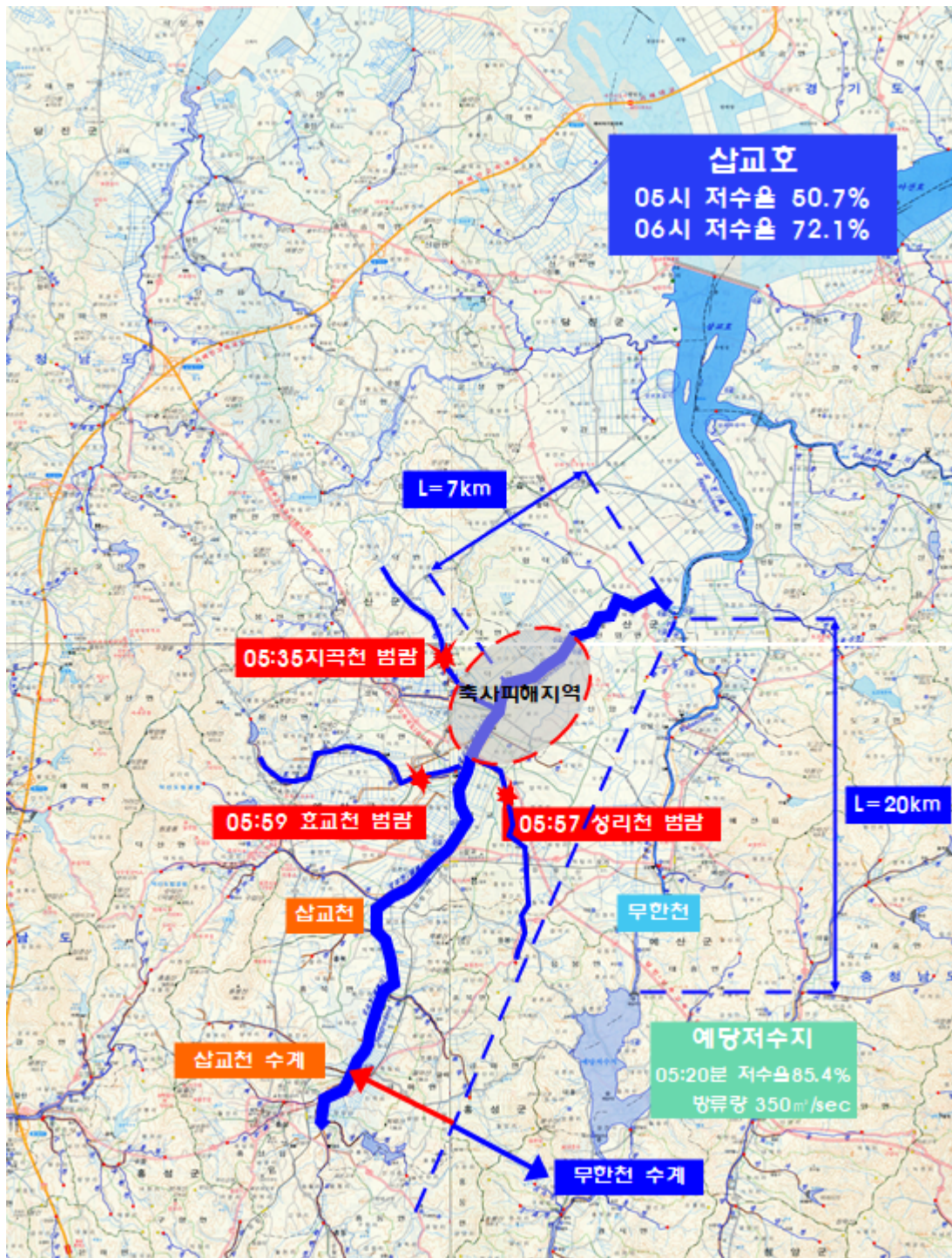
지난 7일 채널A 보도에 공식 해명 자료 배포... "예당저수지 방류와 침수 시점 달라"
축사 침수는 극한 호우와 지방하천 범람이 원인... 방류는 사전조치 거쳐 점진적 진행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7일 보도된 채널A의 '예당저수지 방류로 축사 100마리 소 침수'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실 오도"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예당저수지 방류 시점과 침수 발생 시점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침수의 직접 원인은 지곡천 등 지방하천의 범람"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30분 만에 소 100마리 수장...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예당저수지에서 미리 물을 빼놓지 않아 피해가 커졌고, 아산만이 닫히면서 하천이 역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침수피해 발생당시(7.17 05:35분경) 삼교호 유역 상황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그러나 보도 내용 중 예당저수지 방류로 인해 축사가 침수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사에 따르면 예산군 일대에는 지난달 16~17일 이틀간 평균 410mm의 비가 내렸으며, 덕산지역의 최대 시우량은 90mm에 달해 기상청 기준 '극한호우'에 해당한다. 특히 1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단 3시간 동안 23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같은 폭우는 지곡천, 성리천, 효교천 등 지방하천의 제방 설계기준(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축사 인근 지곡천은 17일 오전 5시 35분경 범람을 시작했으며, 7시 30분쯤에는 마을 전체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지곡천은 삽교천 상류 지류로 예당저수지가 위치한 무한천과는 수계가 다르며, 방류 이전 이미 하천 범람이 시작된 만큼 침수 원인을 예당저수지 방류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예당저수지의 방류는 오전 5시 20분부터 초당 350~700톤 규모로 시작됐으며, 최대 방류량인 초당 1400톤은 8시 30분에 도달했다.

공사는 "무한천 수위와 삽교호 저수율이 당시 여유가 있었고, 역류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류가 축사 침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삽교호 수위는 17일 오전 5시 기준 50.7%, 6시 기준 72.1%로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홍수 시 역류가 발생할 정도의 만수위 상태는 아니었다.

예당저수지는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은 아니지만, 공사는 극한호우 전 사전 방류를 통해 저수율을 56.4%까지 낮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후에도 금강홍수통제소의 지시에 따라 7월 16일 20시부터 초당 80톤씩 점차 방류를 시작, 하루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방류량을 늘렸다.

공사 측은 "유입량이 최대 초당 2216톤까지 도달한 가운데, 예당저수지가 없었다면 이 물이 무한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예산읍 일대가 침수됐을 수 있다"며 "예당저수지는 오히려 침수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끝으로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공감하며, 빠른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와 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라 기자 nara79@afnews.co.kr